북스

Books

조작된 8·15 종전일…잊혀진 한국인 전범

8월15일의 신화 사토 다쿠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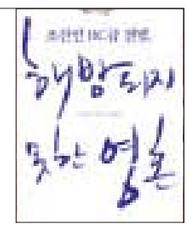
8·15에 즈음해 일본인이 쓴 두 권의 책이 나란히 출간돼 눈길을 끈다.

역사미디어 연구가 사토 다쿠미가 쓴 '8월15일의 신화'는 일본인들에게 종전의 날로 기억되는 8월15일이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8월14일이나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2일이 종전일이지만 지금도 일본의 종전일은 옥음방송(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울리던 8월15일이다.

왜일까. 저자는 한 장의 사진에서 그 의문의 실타래를 풀어간다. '아사히신문'이 종전 10주년 특집기사로, 1945년 8월15일 옥음방송을 듣고 우는 비행기 공장의 여자 정신대원의 사진을 실은 것이다. 저자의 추적 결과, 이 사진의 촬영자나 사진 속 인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했다. 다른 신문에 실렸던 옥음방송을 듣고 난 뒤 일본 국민의 반응을 담은 사진들도 정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조작된 것이었다.

저자는 일본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연합군총사령부의 일본 통치가 마감되던 때를 주목한다. 당시 일본은 탄탄해진 경제력을 발판 삼아 남의 손에 맡겨졌던 굴욕의 시기를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다. '불가피한 전쟁'이었고, '대동아 공영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옥음방송 사진을 이용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유명한 옥음방송 사진이 실리던 1955년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저자는 신문, 라디오, TV, 역사교과서 등을 통해 일본이 8월15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종전기념일이 됐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궁리·1만3천원〉

해방되지 못한 영혼… 우쓰미 아이코 지음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우쓰미 아이코가 지난 1982년 일본에서 출간한 책이다. 전범에서 친일파로, 친일파에서 일본군 앞잡이로 평가받아야 했던 조선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 출간과 한국어판 출간이 25년의 시간차를 둔 것은 이들 조선인 B·C급 전범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부채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생존 조선인 전범들의 증언과 각종 비밀문서,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행로를 따라가며 역사를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동남아의 포로수용소에서 일본인 군속으로 근무하다 종전 후 전범이 된 이들 또한 일본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들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철저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진 존재였음을 방증한다.

B·C급 전범으로 처리된 조선인은 148명. 이 중 대부분은 타이, 자바, 말레이 등 동남아 지역 포로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일하던 군속이었다. 군마나 군견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당했던 이들이 어떻게 '전범'으로 뒤바뀌었을까. 연합군 측은 서류상 국적이 일본이고, 창씨개명으로 이름마저 일본식인 이들이 강제 징용당했다는 사실은 B·C급 전범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1년 결성된 이들의 모임 '동진회'의 노력으로 전범자 유골은 한국의 유족에게 돌아가는 성과를 얻었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B·C급 조선인 전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동아시아·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1955년 8월15일 '아사히신문'이 종전 10주년 특집으로 보도한 옥음방송 사진.

말레이 포로수용소의 조선인 군속들.

근현대사 100년 압축 '20세기 한국사' 출간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20권으로 압축한 '20세기 한국사' 시리즈 두 권이 첫 출간됐다.

역사문제연구소(소장 방기중)의 기획으로 개항기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식민화, 해방과 분단, 전쟁, 독재와 성장, 민주화로 요약되는 역사를 20가지의 주제에 담았다.

이번에 출간된 '이승만과 제1공화국',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를 비롯해 현대편에 총 6권, 일제시기 6권, 개항기 6권, 북한사 2권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 12월까지 완간할 계획.

서중석(성균관대 역사학과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명림(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씨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역사비평사·'이승만' 1만3천원, '박정희' 1만2천원〉

동·서양 문명의 비교와 통합

김지하의 예감-새로운 문명을 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기행

김지하 시인은 자신을 '최후의 국내파'(외신 기자들이 처음 붙여준 별명이다)라고 불렸다. 남들 다 나다니는 해외여행에 쉽사리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수감 생활과 연금 탓도 있었지만, 각종 인권상 수상과 강연 등 세계 각 나라의 숱한 초청 계획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때'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인 김지하가 '김지하의 예감-새로운 문명을 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기행'을 펴냈다. 지난 2005년 일간지에 연재한 '문명의 시원을 찾아서'를 다듬고 새로운 원고를 추가해 엮은 책이다. 아시아와 서양을 둘러보며 동·서양의 비교와 통합을 논하고픈 욕구가 담긴 책이다. 그의 책은 보통의 세계여행기와는 다르다. 동학과 율려 등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확립시킨 '흰 그늘의 미학'과 '생명평화 사상' 등 자신만의 독특한 렌즈를 통해 각 지역을 조명하기 때문이다.

책은 또 옥고를 치를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외국인사들과의 생생한 만남과 세계 각국에서 열린 각종 강연회 모습들도 다루고 있다.

책은 그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지역으로 꼽은 알마티, 이시쿨, 타슈겐트 등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등 유럽과 보스턴, 뉴욕, 휴스턴 등 미국의 14개 도시, 그리고 베트남과 홍콩, 일본, 중국을 아우르고 있다.

그의 주장에 완전히 동감할 수는 없지만, 고향인 전라도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밝힌 '광주' 부분에 적힌 쓴소리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한번쯤 되새겨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시인은 여행지에서 감흥을 40여편의 즉흥시로 표출했으며 '주역'에 기반을 둔 우주적 상상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註)를 통해 구체화시켰다. 책에 등장하는 먹그림은 여행을 함께한 부인 김영주(토지문화관 관장)씨와 저자가 부러진 붓대로 그린 작품들이다. 〈이룸·1만7천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i

▲산을 내려가는 법=소설가 김남일씨가 10년 만에 내놓은 소설집. 각종 문예지에 실렸던 단편소설 9편이 한데 묶였다. 제1회 전태일문학상 수상이라는 약력이 말하듯 등단 이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저자가 개인과 사회의 충돌이 빚어낸 상처를 되짚는다. 〈실천문학사·9천800원〉

▲중국 거부들의 상도(商道)=교사와 언론인 등을 거쳐 목재회사를 경영하는 중국인 동위엔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중국 역사상 성공했던 상인들의 모델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황금법칙 21개는 중국 상인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잠언이다. 〈북코프·1만3천원〉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인문학 베스트셀러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탄생시킨 리라이팅 클래식 시리즈의 네 번째 책. 장자 연구자 강신구씨가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살았던 장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 〈그린비·1만4천900원〉

▲요요마의 실크로드=세계적 첼리스트 요요마를 비롯한 작곡가, 고고학자 등 9명의 저자들이 오랫동안 동서양을 이었던 실크로드를 재조명한다. 이들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의 건축과 조각 분야에서 일어난 문화의 만남과 상호교류를 되살리고자 한다. 〈시공사·1만5천원〉

▲이 여자, 이숙의=빨치산 사령관의 아내였던 고(故) 이숙의(1926~2000)씨의 자서전. 월북한 남편 박종근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으로 남하한 뒤 빨치산 활동을 하다 1952년 사망했다. 저자는 공산주의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로 살았던 50년을 힘겹게 털어놓는다. 〈삼인·1만6천원〉

▲우리말 뉘앙스 사전=문화칼럼니스트 박영수씨가 뜻은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우리말의 뉘앙스를 정리했다. 쓰임이 헷갈리는 단어들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단어의 유래에 관련된 설화, 사건 등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힌다. 〈북로드·1만5천원〉

▲중국의 황태자교육=중국 정파대학 교수를 역임한 역사학자 왕징룬씨가 중국의 황실교육을 소개했다.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황실교육의 핵심 노하우와 시스템을 밝히고, 그 교육을 통해 성장한 황태자들의 흥망성쇠, 왕조와 함께 변화했던 제도 및 교재 등을 소개한다. 〈김영사·1만4천원〉

▲홍루몽 살인사건=중국 4대 기서에 해당하는 '홍루몽'을 바탕으로 아시베 다쿠가 쓴 추리소설. '홍루몽'은 친척 간인 두 집안의 몰락과 등장인물 사이의 애정담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원작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여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쳐 추리물스럽게 재해석했다. 〈황금가지·1만3천원〉

▲가끔가다 나는 딴 생각을 한다=소설가 하창수씨의 카툰에세이집.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에 곁들여진 짧은 글들은 발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저자가 일상에서 얻은 '딴 생각'들 117가지가 실려 있다. 뒤집어보는 일의 즐거움이 글에서 묻어난다. 〈리즈앤북·9천800원〉